

영생에 대한 리해의 역사적변천과 그 평가

허 광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인의 육체적생명은 끝나도 그가 지닌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게 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302페이지)

사회적인간의 참다운 영생에 대한 주체의 리론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인식하자면 영생에 대한 리해의 역사적변천과정을 잘 알고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것이 중요하다.

생의 영원성에 대한 사람들의 념원을 반영하고있는 영생에 대한 사색과 탐구는 인간의 추상적사고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 고대시기부터 시작되였다.

그러나 장구한 기간에 걸치는 인류의 영생에 대한 리해는 시대적 및 계급적, 리론적 제한성으로 하여 완성된것으로 될수 없었다.

영생에 대한 지난 시기의 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현존육체적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영생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지난 시기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개체의 활동도 끝난다는 직관적표상에 근거하여 인간의 생명을 육체적생명으로만 리해하였으며 그의 영생문제도 처음부터 영원성문제로 제기하지 못하고 장생불로하려는 소박한 념원을 실현하는 문제로 제기하였다.

오랜 기간의 체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육체에 병이 생겨 심하게 앓다가도 어떠한 물질적재료의 도움으로 병을 털고 일어나 다시 활력에 넘친 생활을 하는것을 목격하면서 현존육체적생명 역시 그 어떤 《불사약》으로 연장시킬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되였으며 그것을 리론화하는데로 나갔다.

우리 나라 고대철학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인사상은 인간의 질병이나 수명이 《천신》이나 《귀신》의 조화에 의한것이 아니라 《만약》, 《선약》과 같은 장생불사약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대 우리 나라는 《선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나라, 《선약(선선들이 먹는 약)》이 많아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무병하여 늙지 않는 나라》로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또한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령스러운 약초가 있는데 이 약초가 삼신산에 있고 삼신산은 우리 나라의 령역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류포되어 중국, 타이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약을 구하려고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내여왔다고 한다.

《장생불로약》의 실재와 함께 그에 의거하여 육체적생명의 끝없는 연장을 실현해보려는 견해는 동방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적지 않게 제기되였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장생불로약》이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의식하게 되고 또 인간생활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나날이 커지면서부터 사람들은 그에 의거하여 《장생불로약》을 제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육체적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영생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의 제한성은 우선 사회적인간의 영생을 육체적생명의 영생으로만 리해하였다는데 있다.

물론 사람을 하나의 생물유기체로 볼 때 사람의 생명은 곧 육체적생명이다. 하지만 사람은 단순히 생물유기체가 아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라는데 생물유기체일반과 구별되는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간의 영생은 마땅히 사회적존재로서 인간만이 가지는 생명의 영생으로 되어야 하며 그래야 그것이 과학적인것으로 되게 된다.

사람이 념원해온 영생은 생물유기체로서의 생명인 육체적생명의 요구만이 충족되는 생활의 영생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적요구가 원만히 실현되어나갈 때만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할수 있으며 그러한 삶의 영생이 참다운 영생이다.

그러므로 영생에 관한 이해가 과학적인것으로 되자면 반드시 생물학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영생이 아니라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영생으로 되어야 한다.

육체적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영생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의 제한성은 또한 그것이 실현될수 없는 비과학적인 영생론이라는데 있다.

인간의 육체적생명은 유한하며 그것은 누구도 변경시킬수 없는 자연적필연성, 객관적법칙성을 띠고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생을 육체적생명의 영생으로 보고 그것을 실현해보려는 시도는 사실상 비과학적인 시도라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영생에 대한 지난 시기의 이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래세》에서 영생을 실현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매우 유치하였던 원시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사람들은 인간유기체와 정신현상의 호상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 생동하게 재현되는 현상을 비롯한 죽은 사람과 관련된 이리저리한 정신현상들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념(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영혼불멸의 관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기로부터 영혼을 통한 영생을 꿈꾸게 되었다.

영생에 대한 사람의 념원을 환상적형태로 반영한 《영혼설》은 초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일단 육체를 떠나지만 언제인가는 육체에 돌아와 되살아난다는 견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는 아시아와 오세안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많은 민족들속에서 찾아볼수 있다. 고대에쉴트사람들은 사람의 죽음과 함께 육체를 떠났던 영혼은 언제인가는 육체에 다시 돌아와 되살아난다는 미신적관념으로부터 죽은 사람의 주검을 특이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미이라를 만드는 관습을 가지고있었으며 이러한 관습은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 30년대까지 존재한 남아메리카의 노예소유자국가였던 인카제국에도 있었다.

사람들은 육체에서 떠났던 영혼이 언제인가는 육체에 돌아와 생명이 되살아난다는 견해가 허황한 망상이라는것을 오랜 기간의 체험을 통하여 점차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속에 뿌리깊이 남아있었던 영혼불멸의 관념은 그후의 사람들의 영생론의를 영혼 그자체의 영생론으로 이끌어가게 하였다. 이것을 반영하고있는것이 바로 종교의 《천당설》이다.

《천당설》은 하늘에는 영생의 세계인 《천당(극락)》이 있으며 사람이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죽은 다음 그의 영혼은 《천당》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비과학적인 설교이다. 주위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이 부족하였고 자기자신에 대하여 너무나도 몰랐던 지난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천당설》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의거하여 영생의 념원을 실현해보려고 하였다.

《래세》에서 영생을 실현할수 있다고 보는 《영혼설》과 《천당설》은 인간의 영생의 념원을 외곡하는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인 견해이다.

그것은 우선 령혼을 육체와 분리된 독립적실체로 본다는데 있다.

《령혼설》과 《천당설》에서 말하는 령혼이란 인간뇌수의 정신현상을 신비화한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인간뇌수의 기능이다. 따라서 육체의 생명활동이 끝나면 뇌수도 자기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령혼(정신, 의식)도 사멸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뗄래야 뗄수 없는 령혼을 육체와 분리된 독립적실체로 보고 설명한 《천당설》이나 《령혼설》은 비과학적인 영생론의에 불과하다.

그것은 또한 현세가 아니라 《래세》에서의 영생을 논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를 고취하였다는데 있다.

사람은 한번밖에 없는 자기 생의 귀중성때문에 다시말하여 현세에서의 삶이 귀중하기때문에 영생을 념원한다. 그런데 《래세》에서의 영생을 인정하면 현실세계와 인생은 무의미한것으로 되게 되며 나아가서 자기의 운명과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게 된다.

이처럼 령혼을 통한 영생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비과학적인 견해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무저항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인생태도와 관점을 주입시키는 반동적인 견해이다.

영생에 대한 지난 시기의 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집단과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형식으로 영생을 실현할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사람의 이름은 인간의 사회적실천활동의 산물이다. 집단안에서 개별적사람이 차지하는 사회적지위나 역할, 집단이 개별적사람에게 주는 과업이나 임무, 평가나 처벌 등은 다 개별적사람의 이름과 결부되었으며 따라서 이름은 집단안의 개별적사람 그자체를 대신하는 유력한 표징으로 되었다.

이름이 생겨나고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름으로 그를 추억하며 또 문자가 생겨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는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차 육체는 죽지만 이름만은 영원히 남을수 있다는 리해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 속담과 오늘까지도 자연바위나 유적들에 남아있는 옛 사람들의 이름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인민대중을 비롯한 진보적인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를 다 바침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집단과 후세에 남아있기를 원하였다.

이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영생에 대한 념원을 실현해보려는 사람들의 견해는 종전의 견해보다 일보 전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이 리해가 육체적생명의 영생과 령혼을 통한 영생론의에 대한 일정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기된 영생론의라는데 있다.

육체적생명의 영생, 령혼을 통한 영생을 론하는것은 다같이 실현될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허황한 영생론의들이다. 따라서 이름을 남기는 방법으로 영생을 실현해보려는 견해는 종전의 비과학적이고 허황한 영생론의를 부정하고 다른 방법으로서의 영생을 시사하였다는데서는 긍정적이다.

그것은 또한 추상적이거나 영생과 그 실현방도를 집단과 결부시키기 시작하였다는데 있다.

지난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본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몰랐기때문에 영생론의도 개인과만 결부시켜 리해하여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사람들은 영생은 자기자신과만 결부된 문제

인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집단, 후세사람들과 결부된 문제라는것을 점차 자각하게 되었다.

이름을 남기는 형식으로 영생을 실현할수 있다는 지난 시기의 견해는 인류의 영생에 대한 사색과 탐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이 견해 역시 과학적이고 완성된 영생론 의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주성실현에 이바지되지 못하는 인생관적론의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과학적인것으로, 완성된것으로 될수 없다.

사회적인간의 영생의 념원이 참답게 실현되자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참답게 옹호하고 실현시켜주는 나라나 민족, 집단을 위하여 기여하여야 한다.

사회적인간의 참다운 영생과 그 실현방도에 대한 과학적이며 완성된 리해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전개된 주체의 인생관에 의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생에 대한 지난 시기의 리해들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립장에 기초하여 영생의 참된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주체의 인생관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잘 알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신들의 삶을 값높고 보람있는 삶으로, 영생하는 삶으로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